

##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

– 비완 · seri, 〈그녀의 심청〉(저스툰, 2017~2019)

허 윤\*

1. 서브컬처 장의 페미니즘적 전환과 여성 소비자 운동
2. 여성이 주인공인 세계와 여성 연대의 재현
3. 공모적 남성성과 여성 거래를 무화시키는 여성 간 로맨스
4. 여성 되기로부터의 탈주와 유목적 주체로 거듭나기
5. 나가며

### 국문초록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GL(Girls' Love)은 서브컬처 시장에서 규모가 작고, 마이너한 문화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속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GL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탈BL’을 선언한 사람들이 남성 캐릭터 대신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GL을 소비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것이다. 여성창작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여성 서사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여성 서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8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웹툰 〈그녀의 심청〉은 신화 다시 쓰기를 통해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효녀, 열녀 등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은 〈그녀의 심청〉에서 모두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착한 딸은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고, 현숙한 부

---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심청 외에도 뽕덕어미나 장승상 부인, 장승상의 며느리까지 여성인물들의 사연에 집중함으로써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의 연대는 자연스레 GL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심청〉은 여성 사이의 키스나 포옹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표현하며, 남자 없는 세계의 여성 간 로맨스를 보여준다.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종종 ‘위험하지 않은’ 우정이나 소녀적 감수성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그녀의 심청〉의 여성 간 로맨스는 여성 거래의 문화적 규칙을 깨는 여성 성장 서사다. 이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거래해온 공모적 남성 연대의 모순이 드러난다. 이처럼 GL 서사는 로맨스가 불가능한 시대의 서브컬처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제어: 〈그녀의 심청〉, GL, ‘페미니즘 리부트’, 탈BL, 여성 독자)

## 1. 서브컬처 장의 페미니즘적 전환과 여성 소비자 운동

여성이 즐기는 대표적인 서브컬처 장르는 BL(Boy's Love)과 팬픽 등 남성 간 성애물이었다. 여성이 창작하고 여성이 읽는 BL은 1970년대 일본에서 ‘소년애’ 장르로 출발하여 해적판 만화를 통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고, 1990년대 후반 아이돌그룹의 인기와 함께 서사적 확장을 이룬다. 팬덤에 의한 2차 창작인 RPS(Real Person Slash)는 원텍스트인 아이돌의 행동, 말투, 관계 등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루어졌고, 주로 여성인 아이돌 팬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서브컬처 장르에서 BL은 창작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고, 창작자와 독자가 하나의 ‘동인’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호텍스트적 세계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BL은 각종 전자책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는 고객을 가진 장르가 되었다.<sup>1)</sup>

한국사회에서 BL은 여성들의 은밀한 욕망 혹은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 그래피로 유통되어 왔다. 십대 여성들은 팬픽이나 BL을 통해 남성 신체를 대상화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성적 친밀성을 상상할 수 있었다.<sup>2)</sup> 이는 서브컬처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상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 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sup>3)</sup> 여성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혹은 여성 서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SNS를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폭발하였으며, 독자로서 성평등한 텍스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성인 지 능력이 없는(gender blind) 텍스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

- 1)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주요 유통사들은 전자책 시장에서 비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알라딘의 경우, 전체 전자책 매출 대비 비엘 비중(소설+만화)이 2017년 7월 13%에서 2019년 2월 현재 30% 이상까지 높아졌다. 교보문고의 경우, 비엘이 상업화되기 시작한 2015년과 2016년 각각 월평균 매출성장률이 213%와 211%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페미니즘 시대 ‘비엘’ 논쟁 뜨거운 까닭은>, 『한겨레』, 2019.5.17.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94266.html>(최종검색: 2020.10.10.)
- 2) 박세정, 『성적 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류진희, 『동성서사를 욕망하는 여자들: 문자와 이야기 그리고 퀴어의 교차점에서』,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모음, 2012, 195-223쪽.
- 3) 2015년 초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IS가 좋다”며 IS로 간 소년과 “무녀야적 페미니즘이 IS보다 위험하다”는 칼럼리스트 김태훈의 발언은 2000년대 이후 누적된 여성혐오가 임계점을 넘어 수면으로 올라왔음을 알렸다. ‘김여사’, ‘된장녀’, ‘김치녀’와 더불어 여성혐오가 한국사회에서 이미 ‘일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여성혐오를 커밍아웃한 공론장 덕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갈리아까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일련의 흐름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명명하면서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의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호, 2015, 14-47쪽.

다. 이에 남성들만 등장하고 여성은 부차적인 인물이 되는 BL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매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탈BL, 탈남캐’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이 읽고 생산하는 서브컬처에서조차 여성이 조연, 혹은 악역으로 등장하는 방식에 문제제기하면서, BL 문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sup>4)</sup> 또한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등장인물을 아름다운 형태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형상이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짧은 머리에 속눈썹이 없는 여성 캐릭터, 미남이 아닌 남자 캐릭터 등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만화나 애니메이션, 웹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성이 그리고, 여성이 나오는 만화, 웹툰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열기에 발맞춰 등장한 것이 여성 간 연대와 로맨스를 그린 웹툰 〈그녀의 심청〉(비완·seri)이다.

2017~2019년 저스툰에서 연재되고, ‘2018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그녀의 심청〉은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중심으로 ‘효’와 ‘열’로 대표되는 ‘그녀의 이름’을 의심하고 질문한다. 본격 백합물을 표방한 〈그녀의 심청〉은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의 창작물이다. 현재 외전을 포함한 특별판 세트가 출간되었으며, 연재 종료 당시 진행된 텀블벅 프로젝트는 1131%로 마무리되었다.<sup>5)</sup> 또한 중국(2018년 8월), 일본(2018년 10월), 프랑스(2019

4) 2018년 말부터 트위터를 중심으로 ‘탈BL’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 타레를 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즐기던 서브컬처 문화가 여성 대상화나 성애화 등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BL을 비롯한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서사를 거부하고 여성 창작자가 여성을 그리는 텍스트를 소비하겠다는 결심도 이어진다.

〈두유노 탈BL/탈남캐?〉, 탈BL/탈남캐 프로젝트 블로그, 2019.3.2.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roject069>(최종검색: 2020.10.10.) 트위터

<https://twitter.com/6969project>

이러한 탈BL논의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효진,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여성문학연구』 47호, 2019, 한국여성문학학회, 197-227쪽.

년 2월), 대만 코미코(2019년 4월) 등 전 세계 6개국에 수출하였고<sup>6)</sup> 스튜디오앤뉴에 영상화 판권이 판매된 상태다.<sup>7)</sup> 카카오페이지에 공개될 때는 GL 카테고리가 없어서 BL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는 해프닝도 있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본고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도래한 서브컬처의 전환 지점에서 〈그녀의 심청〉을 분석함으로써 이성애가 불가능한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 재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서브컬처 장의 변화를 살피고, 로맨스 장르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는 데도 필요하다.

## 2. 여성이 주인공인 세계와 여성 연대의 재현

BL이 서브컬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GL(Girls' Love)은 시장 규모가 작고, 마이너한 문화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속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성들 간의 사랑을 다룬 GL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탈BL’을 선언한 사람들이 남성 캐릭터 대신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GL을 소비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식이다. SNS상에서는 〈그녀의 심청〉을 권하는 독자들이 “그녀의 심청 보는중... 총 3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여성서사 만화니까 이것

5) [https://www.tumblr.com/hersimcheong\\_se](https://www.tumblr.com/hersimcheong_se)(최종검색: 2020.10.10.)

6) 〈그녀의 심청 전 세계 6개국 연재 확정, 글로벌 시장까지 휩쓴다〉, 『국민일보』, 2019.4.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26295&code=611711111&sid1=i>. (최종검색: 2020.10.10.)

7) 〈단행본매출 1위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올 상반기 5작품 영상화 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2019.6.25.

<https://cm.asiae.co.kr/article/2019062509150896025#Redyho>(최종검색: 2020.10.10.)

저것 생각 안하고 그냥 지르려고 ). (<:: 그나저나 작화 오진다 장신구 너 무 예쁘면서 실제 있을것같은 조합이고 승상은 제발 죽으시길 만난 지 1컷만에 비호감 됨 ㅋㅋㅋㅋ<sup>8)</sup>>과 같이 여성 서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여성창작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여성 서사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여성 서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웹툰 <그녀의 심청>은 고전 다시 쓰기를 통해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녀의 심청>은 장승상 부인은 왜 공양미 300석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현숙한 장승상의 부인은 왜 심청의 공양미 삼백 석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름난 효녀 심청은 이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와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동안의 심청전 다시 쓰기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효녀가 되기 위해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도움을 거절해야 하고, 장승상의 부인은 훌륭한 여성이기에 가까이 어려운 자를 위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심청>은 효녀와 열녀가 될수록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잃어가는 여성들에게 개성을 부여한다. 모두 똑같은 효녀담, 열녀담 속 인물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 고전 서사의 토대를 뒤흔들고 현대적 여성 서사로 거듭난다.

눈먼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구걸과 동냥, 도둑질까지 마다하지 않는 하층민인 심청은 ‘여자가 될 수 없다. 산발한 머리에 맨발, 잘 씻지 않은 몸 등 남자로 오해받을 정도다. 반면 상층 계급 여성인 장승상 부인은 심청과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장 여성적으로 묘사된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녀의 심청>의 1권 표지는 앞은 중성적인 심청이,

8) <https://twitter.com/fleurcalendula/status/1145261563575599105/photo/1>(최종검색: 2020. 10.10.)

뒤는 화려하게 치장한 장승상 부인이 등장한다. 2권의 표지는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유사한 외모를 한 심청이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그림 1〉 『그녀의 심청』 1권 표지



〈그림 2〉 2권 표지

이처럼 〈그녀의 심청〉은 계급의 격차가 젠더 규범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 규범의 강화는 상류 계층에서 더 강화되고 있으며, 하층 계급은 규범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의 로맨스는 기존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멜로드라마의 정치적 가능성을 따르고 있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녀의 심청〉은 여성 간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반복해온 전형적인 로맨스 서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극의 핵심 질문으로 삼자 서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름 없는 장승상 부인에게 서사가 부여된다. 그녀가 왜 현숙한 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렁뱅이인 심청을 수양딸로 삼고자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그녀의 심청〉은 장승상 부

인을 젊은 여성으로 바꾼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여자의 길이라고 배운 탓에 현재의 비극에 이른 인물이다. 남자인 오라버니보다 더 책도 많이 읽고 시도 잘 지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 결과 규범에 순응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심청>에서 장승상 부인과 심청은 계급이나 지위는 다르지만,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통한다. 심청은 무능한 아버지를 먹여 살리느라 날뎀팔이부터 구걸, 도둑질까지 무릅쓸 만큼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심봉사는 그런 심청에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했냐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다. 악역인 장승상의 며느리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학대당한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은 실상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들은 정해진 규범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나쁜 여자'가 된다. 원작의 악역 뺨덕어미는 혼자 아들을 낳은 탓에 '나쁜 여자'가 되었다. 혼자 아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일하느라 집에 아들을 혼자 두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아들 덕이를 버린 '뺨덕'이라 부른다. 이처럼 <그녀의 심청>에서 여성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희생양이 된다.

장승상 부인은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숙한 부인을 연기한다. 첫날밤에 남편이 죽었지만, 친정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초례를 치른 것처럼 연기한다. 장승상의 아들은 자신보다 어린 새어머니를 어른으로 모시지 않고, 하인들마저 그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게다가 인당수에 이변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새로 나타난 외부인인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승상 부인은 현숙한 부인을 연기한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심청에게 “네 아버지는 다정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을 고른 것”(30화)이라고 알려줄 만큼, 가부장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승상집에서 권력을 갖기 위해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래봤자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승리뿐이다. 〈그녀의 심청〉은 여성성을 연기해서 얻는 권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보여준다.

장승상 부인의 말을 따라 여자다운 몸가짐을 하게 된 심청은 효녀라는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각종 성폭력에 노출된다. 남자들의 폭력을 고발하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네 몸가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난이다. 치마 길이를 늘이고, 속옷을 더 갖춰 입는 것으로 성폭력을 막을 순 없다. 장승상 부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규범을 최대한 이용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녀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려 복수하는 정도였다. 남편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며느리는 그로 인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다. 여성들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구조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결국 〈그녀의 심청〉은 정승의 화려한 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장승상의 죽은 전 부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승상의 죽은 전 부인과 심청의 어머니는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신분과 성별에 가로막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청이 어머니의 편지를 찾았을 때, 그녀의 이름이 ‘연’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자기 연민에 빠진 심봉사는 그 마지막 편지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결국 ‘그녀의 이름’을 빼앗는 것은 가부장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웹툰은 단 한 줄로 기록된 여성들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현미경을 들이댄다. 그 결과 딸 세대인 심청과 장승상 부인에 와서, 그녀는 높은 담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뛰쳐나와 심청을 구하러 가는 행위자가 된다.

### 3. 공모적 남성성과 여성 거래를 무화시키는 여성 간 로맨스

〈그녀의 심청〉의 공간적 배경은 유리국이다. ‘유리국’의 유리는 일본어로 백합, 즉 여성 간 로맨스를 지칭하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작가들도 유리국이라는 지명을 의식했다고 말한 바 있다.<sup>9)</sup> 백합물은 여성들 사이의 로맨틱한 우정과 애정을 다루는 서브컬처 장르를 지칭한다. 여학교나 여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성들 사이의 강한 연대와 친밀성은 동아시아 근대 초의 에스(工ス) 문화에 그 기원을 갖는다. 에스란 여학교에서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 ‘동성연애’를 뜻하는 은어로, sister, 혹은 step-sister의 약자이다. 여학생 사이의 동성애는 남성들과의 성적 접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다 너그럽게 용인되기도 하였다. “여자들 사이에는 이 동성애가 잇음으로 해서 정서의 애뜻한 발달을 재촉함이 되고 따라서 남녀 간의 풋사랑에 대한 유혹을 면함될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동성연애’는 “이익은 있을지언정 해는 업슬 관계”로 옹호된 것이다.<sup>10)</sup>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가 여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정서와 인격의 발달을 가져오고, 남학생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등 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sup>11)</sup>

이처럼 섹슈얼리티의 위협이 없는 여성들 사이의 관계로 낭만화되었던 에스는 백합물이라는 서브컬처 장에서 여성 간의 로맨스를 지칭하는 GL로 거듭났다. 〈그녀의 심청〉은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여성들 사이의 관

9) 비완·seri, 『작가 후기』, 『그녀의 심청』 2권, 위즈덤하우스, 2019, 319쪽.

10) 소춘, 『요대의 조선 신여자』, 『신여성』 1923년 11월.

11)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빼라』 제1호, 2012, 142-164쪽.

계와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두 사람은 심청이 물에 빠진 장승상 부인을 구해줌으로써 처음 만난다. “내 손으로 아버지를 버릴 수도... 스스로 세상을 버릴 수도 없이 부디 이 삶에서 벗어나게...”를 빌던 심청이 똑같은 말을 하는 장승상 부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빠가 금자라를 잡겠다고 배에서 낚시를 하는 통에 물에 빠진 장승상 부인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쓰러져 있고, 심청은 그녀를 구해낸다. 살려준 답례로 신부의 붉은 팔찌를 건네준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 서브컬처 장에서 붉은 실은 운명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장승상 부인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녀를 벼슬과 교환하는 오빠와 그 제도를 수궁하며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이다. 여성을 자원과 교환하는 것은 친족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오래된 제도이다. 게일 루빈은 “여성을 원자재로 간주하고 가내노예화된 여성으로 가공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로서의 섹스/젠더 체계를 파악한다. 루빈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초역사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찾는 정신분석학이나 자본주의의 잉여가치 생산 과정에서 찾는 맑시즘과 달리, 결혼과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친족 구조의 형성에서 찾는다. 친족은 성적인 행위와 같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축제와 같은 공적인 영역을 조직했다. 생산과 분배, 적대와 연대, 종교의식과 사회의식이 모두 친족 구조 안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처음에 친족 구조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던 것은 레비스트로스였다. 레비스트로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교환 파트너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거나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모스의 증여론을 바탕으로, 결혼이 이 선물 증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친족체계의 본질을 남자들 사이의 여성 거래, 즉 여성을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성을 선물로 주는 것은 말이나 소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성을 선물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

친족은 남성과 여성의 위치, 권리 등 권력 관계를 만들어낸다. 근친상간과 동성애 금지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이성애규범성은 이러한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자형제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야 하기에, 여성은 자신의 친족 밖에서 결혼 대상을 찾아야 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sup>12)</sup> 여성은 결혼으로 증여되고, 전쟁에서 전리품이 되고, 호의 표시로 교환되고, 공물로 보내진다. 장승상과 장승상 부인의 오빠, 심봉사와 주지 사이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위해 두 여성은 교환된다.

〈그녀의 심청〉에서 남자들은 여성 거래를 통해 성공하고자 한다. 장승상은 손녀뻘인 부인을 들인 탐욕스런 인물로, 어린 아내의 오빠가 바친 금자라를 먹고 그날 밤 사망한다. 장승상의 아들은 어린 새어머니를 제거하고 자신이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한다. 장승상 부인의 오빠는 기방에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하고 뒤늦게 벼슬을 얻으려 동생을 늙은 장승상에게 시집보낸다. 그는 어릴 적에는 동생이 쓴 시를 자신의 시로 속여서 서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가 신부의 지참금 대신 마련한 금자라를 먹고 승상이 죽었으며, 그로 인해 인당수의 용왕도 분노했다. 결국 인당수의 비극은 남자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심청과 장승상 부인을 둘러싼 구조에서 남성들은 철저하게 위계화 되어 있다. 장승상의 아들이나 몽은사의 주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한 자들로, 도화동의 질서를 관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을 이용한다. 몽은사의 주지는 “여자는 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쉬지 않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게 된다”<sup>13)</sup>고 말할 만큼, 여성을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로 치부한다. 심

12) 계열 루빈, 『여성 거래』, 신혜수 외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104-114쪽.

13) 비완·seri, 『그녀의 심청』 1권, 위즈덤하우스, 2018, 50쪽.

청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도 주지다. 그는 심청이 장승상 부인과 어울리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장승상 부인을 여우라고 부르며, 심청에게 자기 말만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주지는 권력을 가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구조를 이용하여 심청과 장승상 부인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는다. 게일 루빈은 여성 거래가 남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며, 교환을 통한 남성들 사이의 연대가 가부장제 자본주의를 수립시키는 원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 선물과 교환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신뢰 관계, 연대, 상호 원조를 제공해준다.<sup>14)</sup> 신에게 주어진 업을 다하라고 가르치는 주지에게, 자신의 업을 벗어나는 심청이나 장승상 부인은 방해물이 될 뿐이다. 때문에 몽은사 주지와 장승상의 아들은 혐의 하에 장승상 부인과 심청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심청을 용왕의 신부로 보내는 것이다.

심청의 아버지는 위의 남성들과 달리 무능력한 추종자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날품을 팔고 구걸하러 다니는 딸을 걱정해 그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이지만, 심청은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오히려 더 책망하게 된다. 그동안 무능하지만 착한 가장으로 형상화된 심봉사는 <그녀의 심청>에서 어린 딸에게 기대어 살았으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자각이 없는 인물로 재현된다. 그는 아내도, 딸도 책임지고 돌보지 않았으며, 자신이 눈만 뜨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헛된 꿈을 품고 있다.<sup>15)</sup> 겉보기에 약한은 아니지만, 자신을 둘러싼 구조를 그대로 승인하고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고 있는 종속적 남성인 것이다.

종속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처럼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특정

14) 게일 루빈, 『여성 거래』, 신혜수 외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140-147쪽.

15) 비완·seri, <그녀의 심청> 30회, 저스툰, 2018.2.13.

한 형태의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한다. 생계부양자로서 강력한 권위를 갖는 남성성의 규범적 정의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종속적 남성들은 남성성의 헤게모니에 공모함으로써 배당금을 얻는다. 이들은 심청의 아버지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딸의 희생을 통해서만 생존한다. 공모적 남성성의 상당수는 여성을 존중하고 집안일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규범을 벗어나는 순간, 그를 공격한다.<sup>16)</sup> 도화동의 주민들이나 선원들 역시 이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당수에 제물로 팔려온 심청을 동정하면서도, 심청을 용왕의 신부로 바쳐야만 자신들이 무사히 항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 몽은사의 주지와 장승상 아들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화동에서 장승상 부인은 남편을 죽인, 불길한 여자로 몰려 배척된다. 여기서 그녀를 구하려던 심청은 산제물이 되고 만다.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벗어난다는 것이 비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녀의 심청〉은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도화동에서 희생자에서 행위자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장승상 부인과 심청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집을 나설 용기를 서로에게서 얻게 된다. 여성 간 로맨스가 여성의 자유를 되찾아준 것이다.

〈그녀의 심청〉은 서브컬처 장르의 관습이기도 한 여성 간 로맨스를 통해서 교환되는 여성이기를 거부한다. 남편을 죽이고, 인당수에서 금자라를 빼앗은 범인으로 몰린 장승상 부인은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된다. 그런 와중 심청이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장을 탈출한다. 장승상 부인이 집 밖을 나간 것도 심청 때문이었고, 궁극적으

16)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127-128쪽.

로 질서를 파괴하고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심청 때문이었다. 그녀는 인당수의 제물이 될 찰나의 심청을 구해낸다. 선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욕을 하는 장승상 부인의 모습은 귀족 여성의 규범을 벗어난다.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장승상의 몸에서 금자라를 꺼내온 그는 현숙한 양반 부인의 명예 대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 칼자국 난 얼굴을 하고, 두 사람은 남성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와 작별한다. 〈그녀의 심청〉의 하이라이트는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용왕의 신부로 바쳤지만, 그 용왕조차 여성이었다는 설정에 있다. '신부'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 4. 여성 되기로부터의 탈주와 유목적 주체로 거듭나기

『그녀의 심청 외전』에는 「혼례날 밤에」, 「악녀와 거렁뱅이」, 「가는 길」, 「다툼 날」 등 4편의 에피소드가 수록되었다. 이중 「악녀와 거렁뱅이」는 뽕덕어미의 전사(前事)이고, 「가는 길」은 뽕덕어미와 장승상 덕며느리의 탈주를 그린다. 무당의 딸로 태어나 점을 치며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저주했던 뽕덕어미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남자에게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절된다. 임신한 뽕덕어미는 혼자 아들 덕이를 낳아 기르며 고생한다. 하지만 여성을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녀의 심청〉은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 싶어하는 뽕덕어미가 심청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심청이 뽕덕어미에게 살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가는 길」에서는 뽕덕어미가 장승상의 며느리를

살게 한다. 불타는 승상택을 함께 빠져나온 두 여성은 마을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정을 쌓는다. “난 이제 끝났어. 다 망했다고, 이런 삶 따위…”<sup>17)</sup>라고 말하던 며느리가 본 적 없는 풍경을 보기 위해 뺨덕어미와 여행을 계속하며 커플이 되는 것은 〈그녀의 심청〉의 여성 등장인물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녀의 심청〉은 여자 되기의 규범을 어기고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성장소설의 전범을 따른다. 이 과정에서 심청과 장승상 부인은 사랑과 죽음, 재생을 통해 성장한다. 주변을 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가련하고 연약한 여성을 연기해야 한다고 하던 장승상 부인은 어릴 적 자수보다는 춤을 잘 추고, 인형으로 전쟁놀이를 하던 명랑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인형처럼 곱고 꽃처럼 예쁜 여자가 된다. 그래서 〈그녀의 심청〉은 이 여자 되기로부터 탈주하는 과정을 다룬다. 로맨스 장르의 클리셰가 ‘말괄량이 길들이기’ 식의 플롯이었다면, 여기서는 현숙한 부인이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배에서 뛰어 내린 이들은 도화동을 떠나 유랑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외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저마다의 삶을 찾아 장승상의 기와집을 떠난다. 정주하지 않는 두 여성은 계속해서 탈주한다. 외전에서는 길에 오른 둘의 일상적 에피소드를 포함시켜, 두 사람의 사랑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녀의 심청〉은 여성 간 로맨스를 통해 디아스포라 여성 심청을 다시 해석한 것이다.

한국문학 장에서 심청은 착한 여성이자 효심이 지극한 인물의 표상이다. 심청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경계를 넘고, 살아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여는 현숙한 여성의 전형이다. 이러한

17) 비완·seri, 『그녀의 심청 외전』, 위즈덤하우스, 2020, 88쪽.



심청을 재창작할 때, 중요한 부분은 '심청이 상인들에게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는 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많은 수의 작가들이 '몸이 팔려간' 심청을 성산업에 유입된 디아스포라로 해석하였다.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2003)<sup>18)</sup>에서 팔려간 심청은 난징(중국)→진장(중국)→지룽(대만)→싱가포르→류큐→나가사키(일본) 등을 이동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첩으로, 왕족의 아내로 살아간다. 19세기 동아시아가 서구의 제국주의와 길항하는 과정이 심청의 여정에 녹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황석영은 외국인에게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조선여성을 통해 약소국을 표상한다. 이 약소국의 여성은 관음보살의 현신으로, 세계의 모순을 끌어안는다. 그는 서양인들이 아시아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고, 남자들의 어리석음을 '철부지들'이라고 한탄한다. 그런 심청이기에 성매매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거리의 혼혈아들을 돌보다 '연화보살'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황석영이 재현한 심청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가장 '타락한' 여성이 보살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심청은 서구 근대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아시아를 표상한다.<sup>19)</sup> 그런데 이 대결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모순과 파국을 보듬어 안는 동양적 승화, 신성으로 연결된다. 황석영이 디아스포라 여성을 신으로 형상화한 것은 심청뿐 아니다. 후속작인 『바리테기』에서도 마찬가지다.<sup>20)</sup> 이러한 승화는 황석영 소설에서

18) 이 책은 2003년 『심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이후 2007년 『심청, 연꽃의 길』로 제목이 바뀐다. 황석영은 자신이 원래 제목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심청, 연꽃의 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19)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문학동네, 2003, 309-313쪽.

20) 북한 이탈 주민인 바리는 중국, 홍콩을 거쳐 런던의 다문화 지구로 이주한다. 어릴 적부터 영매의 재능이 있던 그는 이 험난한 이주의 과정에서 주변을 포용할 수 있는 소수자 공동체의 기둥이 된다. 이러한 소수자 되기의 서사화는 장편소설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문화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황석영이 선택한 방식이기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대성의 침범 이전, 즉 전근대성이 지배하는 조선의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주의의 문제는 교묘하게 외면한다. 남성의 이주가 일자리를 찾아 기회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여성의 이주는 성폭력이나 인신매매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심청은 ‘수탈당하는 조국’의 상징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이 심청을 ‘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궁하지 않는다. 황석영은 『심청, 연꽃의 길』에서 심청이 뽕덕어미에게 속아서 상인들에게 몸을 판 것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설정은 심청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심봉사를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킨다. 이는 1970년대 최인훈이 ‘딸 판 아버지’ 심봉사를 명시한 것과도 다르다.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에서 심봉사는 심청이 장승상 집에 소실로 가거나 상인들을 따라 가서 부자 남자를 만나 비단옷 입고 호강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sup>21)</sup>

도 하다. 『바리데기』는 폭력을 신성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폭력을 통과제로 만든다. 구타, 성폭력, 인권의 말살 뒤에 여신이 된다는 ‘전형적’ 설정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자 동아시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갖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한국 여성을 손쉽게 전형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허윤, 『포스트 세계문화와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98쪽.

- 21) “이놈 주둥아리 한번 잘못 놀려 부처님께 시주 한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남경배 상인 들게 공양미 값으로 팔려 물 건너 대국 땅에 기생살이 팔려가는 내 딸 심청이가 떠나는 뱃길을 배웅이나 하고서야 이 발이 떨어지겠네”(345쪽), “색주가에 딸 판 놈”(350쪽), “우리 청이 효녀 되고 우리 뽕덕어미 열녀 되고 이내 몸이야 딸 마누라 위해 천하 잡놈 된다 한들 내 어찌 마달쓴가 부모의 큰 은혜야 하늘이 따를쏜가 바다인들 채울쏜가 자 도화동 저 바다야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잘 있거라, 부모 된 가시밭길 이 몸은 떠나간다”(352쪽) 등 심봉사는 자신이 ‘딸 판 아버지’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딸이 나중에 효녀로 거듭날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최인훈은 심봉사의 자기연민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화를 쓰는 자와 신화가 되는 자, 신화를 믿는 자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드러낸다.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최인훈 전집 10권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학

그가 버린 딸은 중국의 성매매 업소에 팔려갔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결국 해적의 손에 떨어져 다시 군 '위안부'가 된다. 최인훈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희곡 텍스트로 각색하면서, 심청을 둘러싼 힘센 자들의 질서와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고루 드러냈다. 그의 희곡에서 심청은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을의 가난하고 미친 노파로 등장해, 실제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한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젊은 시절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사랑하는 서방님만을 섬긴 심청, 자신을 찾으러 용궁에 찾으러간 아버지를 가진 심청이라는 심청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심청의 이야기를 듣고 달아날 뿐이다.<sup>22)</sup> 부덕의 상징이자 효녀의 귀감이었던 심청을 둘러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심청을 둘러싼 신화화는 팔려간 심청이 생존자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성산업에 노출되고 성폭력을 경험하는 심청의 육체적 훼손은 반복해서 재현되며 통과의례로서의 고통이 된다. 고난을 딛고 신성한, 혹은 미친 여성이 되는 심청의 이야기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공모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재현한다는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다. 이를 극복한 것이 〈그녀의 심청〉이다. 〈그녀의 심청〉의 장승상 부인과 심청은 영토화된 질서로부터 탈주하는 유목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브라이도티는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변이하는 들뢰즈적 의미의 체현적 정체성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백인-남성-중산층이라는 인간 개념으로부터 이동하고 변화하는, 규범에 종속되지 않는 유목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sup>23)</sup> 〈그녀의 심청〉은 뺨덕의

과지성사, 2018, 325-411쪽.

22) “청청/미친 청/청청/늙은 청/놀리면서/ 달아나는 소리/떨어진다/홀로 남는/심청”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최인훈 전집 10권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문학과지성사, 2018, 411쪽.

입을 빌려 “사랑받는 아내, 훌륭한 안주인, 발버둥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손에 넣으려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죽이”(44회)는 여성들이 구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장승상 부인이 승상의 집을 벗어난 후에도, 독자들은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다. 장승상 부인을 비롯해서 가부장제 안의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자들의 분석처럼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 때문이다.<sup>23)</sup> 그의 진짜 이름은 청이에게만, 귓속말로 전해진다.

〈그녀의 심청〉은 지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청전을 다시 쓴다. 여기서의 심청은 미친 노파도, 신성한 보살도 아닌 인간이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극복하는 장한 효녀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구조 바깥으로 탈주한다. 〈그녀의 심청〉은 심청을 효녀로 만드는 구조가 가부장제임을 고발하고 이러한 지점은 독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의 심청〉의 독자들은 심청의 아버지와 몽은사 주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웹툰과 같은 뉴미디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을 통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다. 독자들뿐 아니라 작가들도 댓글이나 SNS를 활용하여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의사소통한다. 네이버 시리즈의 〈그녀의 심청〉 리뷰란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나 몽은사 주지 등을 비판하는 댓글이다.<sup>25)</sup>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관계나 심청의 변화나 성

23)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24) nini, 네이버 시리즈 댓글, 2020.9.3.

“윗 댓글처럼 정말 승상 부인과 뽕덕 어미, 며느리 등 청이를 제외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건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 때문인 거 같네요 너무 잘 읽었습니다 좋은 웹툰 감사해요”

25) 〈그녀의 심청〉은 저스툰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녀의 심청〉이 최초 연재된 저스툰에는 댓글창이 없기 때문에 댓글란이 공개되어 있는 네이버 시리즈를 참고하였다.

장 역시 중요한 공감 지점이지만, 많은 독자가 크게 공감한 것은 남성 캐릭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가난한 집에서 눈 먼 아버지를 홀로 봉양하는 15살 여자가 어떻게 깨끗한 방법만으로 먹고사는 일을 해결해요 아버지ㅠㅠ”<sup>26)</sup>

“애비,,, 눈 멀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루종일 눈먼 아버지 봉양하기위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보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라니... ㅋㅋ ㅋㅋㅋㅋ 눈 멀기 전에도 그랬을 놈이고 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을 놈이로고,,,”<sup>27)</sup>

“애비 말하는 것봐 네가 구해오는 밥이면 충분하다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 밥인데 자기가 구해온 것도 아니면서”<sup>28)</sup>

“스새끼 다시봐도 빠치네.. 늙어빠진 남자쪽은 얼마나 송고한 이유로 아내 데려왔다고ㅋ”<sup>29)</sup>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심청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말만 반복하는 심봉사에 대해 독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발화한다. 심봉사의 자기 연민은 자신을 둘러싼 구조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무지할 수 있는 권력이다. 몽은사의 주지 역시 자신의 이익과 평판을 위해서 심청을 괴롭히는 인물이다. 독자들은 주지에 대해 ‘스새끼’라는 표현을 쓸 만큼, 남성 중심의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이는 <그녀의 심청>에 등장하는 기생 에피소드와도 겹쳐볼 수 있다. 취객에게 살해당한 기생의 범인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기생 여성의 죽음은 하찮은 것이라는 점은 기생이 된 심청이 비천한 삶에도 불구하고 보살로 거듭나고 신성해질 수 있다는 『심청, 연꽃의 길』이 얼마나 기생을 낭만화하

26) 김나겸, 네이버 시리즈 댓글, 2019.7.8.

27) 꺾, 네이버 시리즈 댓글, 2019.7.8.

28) 최민경, 네이버 시리즈 댓글, 2019.7.8.

29) 두통, 네이버 시리즈 댓글, 2019.7.9.

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심청의 선행 역시 마찬가지다. 스님과 심청이 함께 인당수에 빠진 사람을 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스님만을 칭송한다. 여성들에 대한 범죄도, 여성들이 한 선행도 비가시화되는 것이다. 이에 심청은 몽은사 주지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다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그와 다투다 불상을 쓰러뜨린다. 황금으로 장식된 불상은 허영의 상징이다. 그동안 주지가 계속 경계했던 여성의 허영은 종교인인 주지의 황금 불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는 종교와 효도라는 규범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미친 노파도, 신성한 보살도 되지 않기 위해, 〈그녀의 심청〉은 여성 간 연애를 선택한다.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너를 수양딸로 삼아 말년 재미를 볼까 하니 너의 뜻이 어떠하뇨”라는 심청전 속 장승상 부인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작가 seri는 심청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대신 내주겠다고 나서고, 심청의 초상화를 그려 간직하며, 심청이 떠나간 뒤 비석을 세운 장승상 부인의 행위를 ‘사랑’으로 해석한다.<sup>30)</sup> 삼백석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장승상 부인이 아니라 장승상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연상되었을 일이다. 이는 여러 편의 심청전 다시 쓰기에서 절대 바뀌지 않은 중핵이 심청을 둘러싼 이성애규범적 가부장제였음을 보여준다.<sup>31)</sup> 장승상 부인이 심청

30) 비완·seri, 『작가 후기』, 〈그녀의 심청〉, 저스톤, 2019.3.26.

<https://www.justoon.co.kr/content/home/091i07h96e3c/viewer/23pa1z7e8ee7>(최종검색: 2020.10.10.)

31)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나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에서 심청을 욕망하는 사람들은 다 심청의 섹슈얼리티를 착취하고 판매하려고 한다. 심청이 사간 상인들은 인신매매범이고, 심청을 사간 성판매업소의 노파, 사장 역시 심청을 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흥정한다. 모두가 심청의 섹슈얼리티를 남성들에게 판매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을 사랑한다는 설정을 바꾼 것만으로, 〈그녀의 심청〉은 이전의 심청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처음에는 인당수의 제물로 삼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장승상 부인은 심청을 의도적으로 유혹하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심청에게 반한다. 장승상 부인이 자신의 침대에서 심청을 재우거나 잠든 심청의 손에 키스하고(30회), 심청 역시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장승상 부인의 손가락을 빨고(31회) 방치된 사당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데이트를 즐기고(41회) 손을 뺀다 키스하는 등(53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동안 로맨스 장르에서 이성 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는 삽화의 화려함과 함께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같이 잠옷을 입고 장승상 부인의 침실에서 뒹굴거나 한 자리에서 잠드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무척 섹슈얼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저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장승상 부인이 심청을 이용하려고 한 시절에도 심청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먹을 것과 고운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성적 긴장이 첫 만남부터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이를 주변인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 역시 이성애규범적 세계 때문이다.

두 사람의 탈주는 머리를 자르고, 가면을 쓴 채 마을 축제에 나가 즐기는 것으로 이어진다. 축제에 나가기 위해 쓴 가면은 장승상 부인이 현숙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써왔던 진짜 가면을 가린 것으로, 오히려 장승상 부인의 본질을 지시한다. 가짜 얼굴과 진짜 얼굴이 뒤바뀐 지점에서, 장승상 부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 탈출의 서사는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모험과 성장의 구도를 전취하며 여성 간 로맨스의 페미니즘적 전회를 시도한다. 인당수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이 도화동을 벗어나 유랑을 시작하는 것은, 규범으로부터의 탈

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심청〉의 여성 연대는 여성 거래의 구조를 깨고 규범적 여성성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유목적 주체로 거듭난다. 이 여성 간 로맨스는 여성의 이주가 재현하는 전형성으로부터도 탈주한다. 여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탄생을 목도하는 것이다.

## 5. 나가며

〈그녀의 심청〉은 페미니즘 대중화와 여성 서사에 대한 독자들의 욕망 속에서 탄생한 텍스트다. 〈그녀의 심청〉이 성공한 이후, 여성 간 로맨스를 그린 페미니즘 텍스트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저스톤이나 카카오페이지와 같은 유료 플랫폼에서는 아예 GL 섹션을 따로 만들고,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네이버 화요웹툰에서는 여성국극을 다룬 〈정년이〉가 성공적으로 연재 중이다.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에서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텍스트가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다는 것은 서브컬처 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TV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선암여고탐정단〉(JTBC, 2014)에는 동성 간 키스신이 등장했고,<sup>32)</sup>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2016)은 본격 백합물로 화제가 되었다. 여성 간 로맨스를 그리지 않

---

32) 〈선암여고 탐정단〉 11~12회에 등장한 동성 간 포옹과 키스가 방송의 품위 유지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심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성 간 포옹과 키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되는 것과 달리,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검열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더라도, 여성들 사이의 관계와 경쟁, 우정 등이 중심이 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MBC, 2019)의 인기는 서사의 중심이 여성으로 이동한 텍스트에 대한 2040 여성들의 지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연일 계속되는 '#00\_내\_성폭력'이나 '미투 고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진다. 여성독자/시청자에게 현실세계의 연애나 로맨스는 성/폭력과 연결되는 문제가 되었고,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일상적 불안은 여성들을 광장에 불러 모은 신호탄이 되었다. 드라마나 웹툰에 등장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진 것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젠더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로맨스가 불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폭력과 이성을 분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녀의 심청>은 여성 간 로맨스를 통해 여성 간 연대가 여성을 성장시키고, 여성 간 사랑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백합물이 여성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대중문화의 기호로서 사용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금여기의 주제를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온 것이다.

<그녀의 심청>의 작가 seri는 “작품 속 청이와 마님, 뽕덕어미처럼 현실에서 도움과 연대가 필요할 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며 수익금 일부를 국내 저소득층 여아 지원사업,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후원했다.<sup>33)</sup> SNS를 통해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여성이 쓰고,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이 젠더 규범으로부터 탈주하는 텍스트를 요구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녀의 심청>에서 효녀, 열녀 등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은 폐기된다. 착한 딸은 거짓말을 일삼는

33) 작가 seri의 트위터, 2019.6.25., @serikachan  
<https://twitter.com/serikachan/status/1143743488195883008>(최종검색: 2020.10.10.)

딸이고, 현숙한 부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심청 외에도 뽕덕어미나 장승상 부인, 장승상의 며느리까지 여성인물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여성 간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 끝까지 남편의 집을 포기하지 못했던 며느리조차 외전에서는 뽕덕어미와의 삶을 택한다. 여성을 돕는 여성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성 연대는 자연스레 GL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종종 '위협하지 않은' 우정이나 소녀적 감수성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그녀의 심청〉에서 여성들의 관계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 만큼 위험하고 성숙하며, 가부장제의 구조를 깨는 성장으로 연결된다.

결국 〈그녀의 심청〉은 그 화려한 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장승상의 죽은 전부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장을 넘지 못했던 어머니와 달리, 심청과 장승상 부인은 탈영토화에 성공한다. 이들은 도화동을 떠나 유목적 주체가 된다. 탈주하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웹툰에서부터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비완·seri, 『그녀의 심청』 1~7권, 위즈덤하우스, 2018~2020.  
\_\_\_\_\_, 『그녀의 심청 외전』, 위즈덤하우스, 2020.  
\_\_\_\_\_, 〈그녀의 심청〉, 저스툰, 2017~2019.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최인훈 전집 10권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학  
과지성사, 2018, 325-411쪽.  
황석영, 『심청, 연꽃의 길』, 문학동네, 2007.

### 2. 논문과 단행본

- 게일 루빈, 『여성 거래』, 신혜수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김소원, 『그녀들은 왜 소년들의 사랑에 열광하는가? 야마오카 시게유키, 『후쵸시의  
심리학』,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2018, 275-304쪽.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문학동네, 2003, 309-313  
쪽.  
류진희, 『동성서사를 욕망하는 여자들: 문자와 이야기 그리고 퀴어의 교차점에서』,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모음, 2012.  
미조구치 아키코, 『BL 진화론-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 김효진 역, 길찾기,  
2018.  
박세정, 『성적 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6.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호, 2015 가을, 14-47쪽.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빼라』  
1호, 2012, 142-164쪽.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 3. 기타자료

- 〈'그녀의 심청' 전 세계 6개국 연재 확정, 글로벌 시장까지 휩쓴다〉, 『국민일보』,  
2019.4.12.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26295&code=61171111&sid1=i>)

〈단행본매출 1위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올 상반기 5작품 영화화 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2019.6.25.

(<https://cm.asiae.co.kr/article/2019062509150896025#Redyho>)

〈페미니즘 시대 ‘비엘’ 논쟁 뜨거운 까닭은〉, 『한겨레』, 2019.5.17.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94266.html>)

〈두유노 탈BL/탈남캐?〉, 탈BL/탈남캐 프로젝트 블로그, 2019.3.2.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roject069>)

## Abstract

Romance between Women in the Age of ‘Feminism Reboot’  
—Focusing on Biwan seri’s Her Simcheong(justoon, 2017-2019)

Heo, Yo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GL(Girls’ Love), which deals with romance between women, is considered a small, minor culture in the sub-culture market. Nevertheless, recent ‘reboot feminism’ in the voice of women in the epic that appears to be the central protagonist is increased, and interest in naturally gIncreasing. It encourages those who declare “post BL” to consume GLs featuring female characters instead of male characters. In an atmosphere where female creators consume female dictionaries who write women’s stories and argue that they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ir female counterparts, “Her Simcheong,” a webtoon that won the 2018 Our Comics Awar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female epic through rewriting myths.

Gender norms given to women, such as filial piety and nirvana, all get new names in 〈Her Simcheong〉. A good daughter is a liar, and a good wife has a woman she loves. Besides Simcheong, hit-and-run mothers, Jang Seung-sang’s wife and Jang Seung-sang’s daughter-in-law also focus on female characters’ stories, highlighting solidarity among women to survive in a male-dominated society. In this process, solidarity among women naturally leads to GL imagination. Her Simcheong describes direct sexual contact, such as kissing and hugging among women, as beautiful illustrations, and shows romance between women in a manless world. While solidarity among women is always regarded as ‘undangerous’ friendship or girlish sensibility, the romance between women in 〈Her Simcheong〉 breaks the cultural rules of women’s growth novel and women’s trade. This reveals the inconsistency of the conspiratorial male solidarity, which has been trading women around hegemony.

(Keywords: 〈Her Simcheong〉, GL, ‘Feminism Reboot’, Post BL, Feminist reader)

212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논문투고일 : 2020년 10월 14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4일

수정완료일 : 2020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3일